

몽골에 희망 심다

한몽불교협, 현지서 불교유치원 기공식

1000여명에 의료봉사도

(사)한몽불교교류협회(이사장 지성)와 영남대의료원 불교신행회인 영불회(회장 이동철) 회원 40여명은 6월 6일부터 11일까지 몽골 현지를 방문해 몽골 불교의 재건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돌아왔다. 국경을 넘어선 우리나라 불자들의 자비 실천행은 몽골전국 800주년을 맞은 해에 부처님오신 날(몽골에서는 6월 11일)을 앞두고 펼쳐져 의미를 한층 더했으며, 한국 불교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이다. 특히 영남대학병원의 교수 6명을 포함한 34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영불회의 무료 의료봉사활동은 몽골의 중앙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에 소개되면서 몽골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몽골불교총무원장 초이참츠 스님까지 방문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을 모았다.

영불회의 의료봉사활동은 내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치과 등 분야별로 진행됐는데 이틀간 1000여명이 넘는 환자가 진료를 받았고, 몽골 의료진이 함께 진료에 동참해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보고 익히는 기회가 됐다.

특히 의료봉사활동 둘째 날에는 의료기술이 앞선 한국 의료진의 특별진료를 받기 위한 일반 고소득 주민까지 물려와 북새통을 이뤘다. 영불회는 이틀간의 의료봉사활동을 위해 3개월 전부터 몽골대학의 한국어과 학생 15명을 섭외해 통역을 준비하고, 몽골지역주민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질병의 유형을 분석해 그에 맞는 약약품 1500만원 어치를 준비하는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한편 한국불교계가 건립하는 몽골 최초의 불교유치원 기공식은 한몽불교교류협회 이사장 지성 스님과 윤관록 부회장 몽골



한몽불교교류협회 이사장 지성스님(맨 왼쪽)이 몽골 울란바토르시 3000평 대지에 들어서는 몽골 최초의 한국불교계 유치원 기공식에서 첫 삽을 뜨고 있다. 사진제공=한몽불교교류협회

불교 총무원장 초이참츠 스님, 울란바토르시 바르바야르 시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불교전통의식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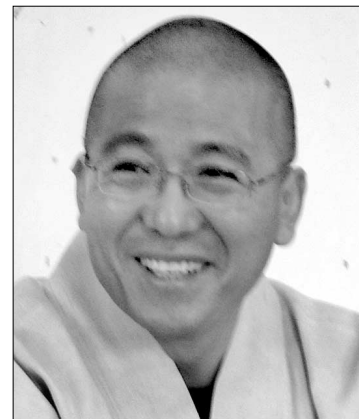
몽골 울란바토르시 자이산 국립공원 내의 3000평 대지 위에 들어서는 불교 유치원은 (사)한몽불교교류협회의 지원을 받아 원생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몽골의 대표사찰 간단사가 운영하게 된다. (사)한몽불교교류협회는 건축성과에 따라 1차 지원금 1억 5천

만 원을 점차적으로 지원하고 건립 후 운영을 위한 유치원교사의 파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한몽불교교류협회 이사장 지성 스님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몽골불교에 큰 희망을 주고 왔다”며 “유치원 건립공사를 위해 500만원을 찬조해 준 석우회원님들께 특히 감사드리고, 원만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 화합을 원칙으로 최선 ”



17일 취임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interview

“동화사내 여러 문종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직승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화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운영이 어려울수록 원칙을 갖고 대중의 합의를 중시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를 품고, 100여개의 말사를 거느린 교구본사에 40대의 젊은 스님이 수장으로 오른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 불교계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 6월 17일 진산식을 보행하고 본격적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운 스님은 교구본담금 운영에 대한 방안도 밝혔다. “말사의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 교구본담금은 그대로 두고 대신 교구본담금을 다시 그 지역 불교를 활성화하는데 환원하고 있는 해 인사의 운영형태를 따르거나 교구를 위해 재투자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복안이다. 또,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행·전법기능 효율적 운영…총림요건 충분” 특별사찰 지정, 50여 신행단체 활성화 모색 장기적 계획보다 주민 위한 알찬 방안 구상

인 입구에 들어간 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교구운영에 있어 화합과 원칙 그리고 합의가 키워드임을 강조했다.

허운 스님은 합의 추대를 이루지 못하는데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내며 또 “후유증을 해소할 길은 공심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사는 길 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화사의 총림 지정에 대해서는 “동화사의 총림요건은 형성됐다. 시절인 연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으며, 교구내 특별사찰을 지정해 운영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 교구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색을 꾀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찰을 수행과 전법의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나눠볼 때 동화사는 수행공간이 많은 반면 시민과 불자들을 위한 수용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말사 중 주변 환경과 역사, 위치 등이 좋은 곳을 특별사찰로 지정해 특색 있게 운영함으로써 동화사의 기능을 본산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스님은 “땀흘리며 농촌, 명상, 종교,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특별사찰을 둔다면 불자들의 많은

50여 신행단체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임기로 인한 부담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 운영하기 어렵다는 공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민도 털어놓았다. 공과를 분명히 해서 가람수호의 역할이 인정될 때 문중에 상관없이 말사의 운영 기회를 주는 것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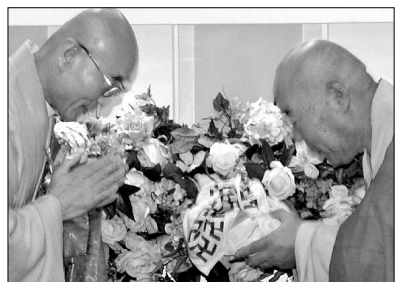
또, 재정상 쉽지는 않지만 구역마다 포교당을 늘려 지역 포교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젊은 스님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동화사 교구 운영에 대한 기대가 고개를 넘어서 증가하고 있어 매일 꽃감을 빼먹는 기분으로 산다”며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은 허운 스님은 “진산식이 후 시간을 갖고 지역불교의 중심사찰로, 지역민과 불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찰로 차근차근 다져가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애정을 갖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사 : (054)634-3429

“지혜·자비 화두로 종단 발전 이룰 것”

경목 스님 태고종 초대 대구교구총무원장 취임



경목 스님은 취임사에서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긴 것은 보살행을 실천하려는 큰 스님들의 가르침으로 생각한다”며 종단의 발전과 종도간의 화합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목 스님은 1960년 대구 통천사에서 사미계를, 1969년 파계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파계사 3하인거를 성만하고, 선암사 대교과를 졸업했으며, 1972년에 대구 견불사 주지로 취임한 후 태고종 대구경북총무원 총회위원, 감사위원, 총무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 중앙사정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한편, 경북교구는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경북예관복지회관에서 법운 스님의 종무원장 취임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1문화재 1지킴이’ 전국대회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내가 직접 지키겠다며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나선 전국 문화재 지킴이 250여명이 경주에 모였다.

‘제2회 1문화재 1지킴이 전국대회’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주최, (사)산문문화원(원장 진병길) 주관으로 열린 것이다.

배지선 기자

이들은 초·중·고등학생과 가족, 학교를 대상으로 ‘내 고장 문화재 알고, 찾고, 가꾸기’ 활동의 으뜸을 가려 뽑는 ‘ 으뜸 문화재지킴이 대축제(기간:2006.6.10~9.10)’ 선포식을 갖고, ‘문화재지킴이 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주제로 한 안동대 인재학교 수의 특강과 우수활동사례발표 등을 통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경험과 성과, 과제를 논의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지선 기자

외국인노동자 쉼터 마련

11일, 대구 보현의 집



대구 관운사주지 지도 보현의 집이 법사 소바나 스님의 요사채 겸 외국인노동자 쉼터로 자그마한 공간을 마련하고 6월 11일 조촐한 집들이행사를 가졌다.

소바나 스님의 건의에 따라 마련된 쉼터는 25평 남짓한 규모지만 스님이 거처할 요사채 1칸과 방1칸, 거실, 공양간, 세면장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이 언제든 스님을 찾아와 상담을 나누고, 쉬었다 갈 수 있게 됐다.

배지선 기자

장애인 위한 정보화교육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은 정보화 교육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초급과정으로 열리는 컴퓨터 기초는 7월 4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워드프로세서 중급은 7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포토샵 7.0 교육과정도 있다. 장애가족(비장애)인도 신청 가능하며, 6월 27일 접수 마감한다. (054)633-6415

배지선 기자

건학 100주년 기념 수계법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법혜)은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14회 수계대법회를 6월 8일 문무관에서 봉행했다. 경하 현성 스님을 전제대회장으로 모시고 열린 수계법회에는 교직원과 학생, 일반인 1800여명이 참여해 재가오계를 받았다.

배지선 기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개소

대구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은 대구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태희)가 6월 9일 남구 이천동 센터 내 교육관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불교사회복지회 이사장 지도 스님과 이신하 남구청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결혼이민자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대구여성전회 이두옥 대표 5명이 자원위원으로 위촉됐다. (053)475-2324

배지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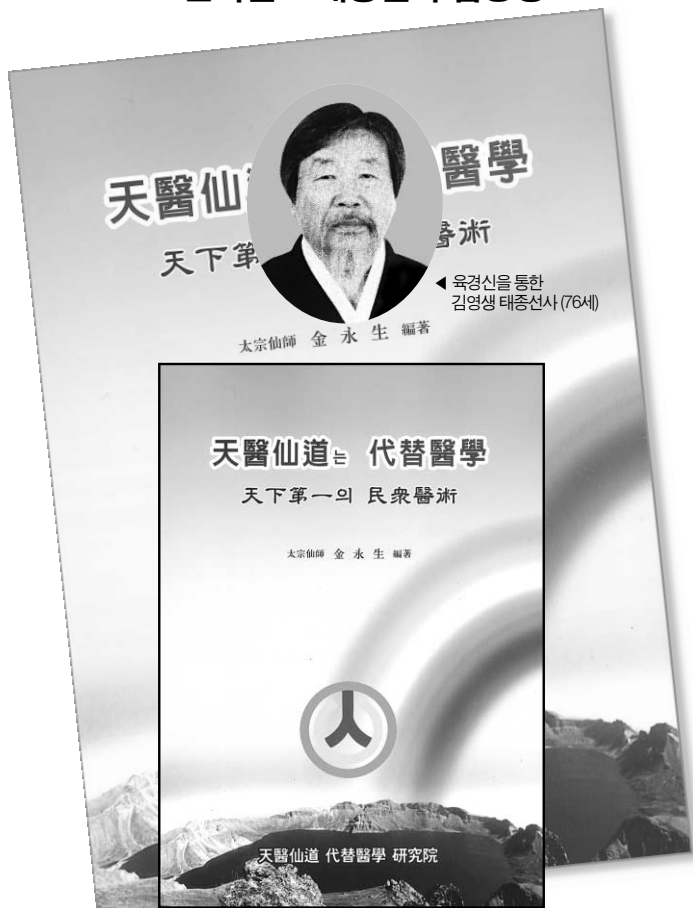
공불련, 해인사에서 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성운갑)는 제6차 합동수계법회를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해인사에서 개최했다.

제13차 성지순례를 겸해 모인 공무원불자회는 10일 일제식을 갖고 저녁9시부터 보광전 칠야정진기도에 들어갔다. 500여명의 공무원불자들은 11일 해인총림 울주종진 스님을 계사로 대적광전에서 수계를 받았다.

배지선 기자

〈화제의 신간 발간〉 -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성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 책값 50만원 / 157페이지 삽입

건강을 원하든지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몸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는 천하제일의 민중 의술. 기적의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드립니다.

몸 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갑상선,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이상자 등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전립선이 좋아진 분은 정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며 요실금이 좋아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니 남편 바람날 염려가 없는 신화 같은 기적의 치료법을 공개했다. 맥박 경량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몇 시간 실습 강의만 듣고 나면 천하제일의 명사가 될 수 있다. 정신분열증, 전간(간질)병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전 세계 의료인에게 이 책을 권유한다

이 책은 영문판, 일어판, 한문판으로 출간해서 전 인류 건강을 위하여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을 전수시키려 한다.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체험 사례와 약 제조법을 공개했다.

※ 전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선단제조법과 은 용해법을 공개했다.
※ 선단은 상기되는 열을 하단전에 모아주고 막힌 곳은 뚫어주고 몸속의 독성을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니 여자가 복용하면 순환제요, 남자가 복용하면 팍스 노인도 이십대로 회춘된다.

※ 은 용해수는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직식시켜주며 축증증, 알레르기 비염이 1개월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토피성 소양증, 무릎 관절염, 손마디 관절염이 3,4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 사상의학의 팔상 분류법과 체질에 이로운 식품, 해로운 식품, 성격, 적성, 체질따라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이만하면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겠는가?

※ 천하제일의 명사가 되는 과정

- ① 천문을 열고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충만할 때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이 떠나게 되니 몸이 거뜨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는 일이 서서히 잘풀린다.
- ② 환신을 받아 인당이 열려야 당신의 마음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목적지에 발산한다.
- ③ 실습강의 1시간 듣고 나면 당시손으로 디스크 환자를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사가 된다.

나는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를 민중의술인이 회복시켰다면 상을 줄 것인가? 벌을 줄 것인가?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의료인을 위한 법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민중의술인에게 상은 주지 않더라도 활동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묵과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나는 침담과학의 의술앞에 공개 검증받고 싶습니다.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원 원장 김영성

■ 본원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화 : 041)741-4600 / 011-9803-4600

■ 서울 수련원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 010-3129-6278

■ 부산 수련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오피스텔 1821호
- 전화 : 051)803-5953 / 011-9803-4600